

**2등작** (주)토문건축사사무소 최기철 + (주)에이플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 이택준 + 박 열 광운대학교 + 임호균 연세대학교 설계팀 양주식, 김종경, 이승근, 황윤석, 박병규(이상 토문) 최병석, 박민재(이상 A+CM)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1-1생활권) 도1-2 대지면적 6,766,00㎡ 건축면적 2,686,90㎡ 연면적 10,098,67㎡ 건폐율 39.71% 용적률 79.37%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최고높이 22.5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석재, 금속루버, 로이삼중유리 주차 62대

### 세종시를 상징하는 처마

세종시 문화교육과 지식교류의 중심으로 건립될 세종시립도서관은 지역사회 지식 인프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자리 잡을 것이며, 세종을 넘어 대한 민국의 상징이 되는 도서관이 될 것이다. 한글 창제 장소인 집현전의 처마선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 전통의 서가에서 느껴지는 공간적 여유와 역동성을 차용하여 새로운 도서관의 처마를 디자인하였다.

### 세종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처마

세종처마는 획일적인 도서관의 모습 대신 앞으로 빠르게 변화될 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을 담아낸다. 이는 입체적인 단면을 통한 건축 공간으로 제안되고 수직적으로 분리된 열람영역과 문화 영역은 합리적이고 원활한 도서관의 기능을 갖는다.

### 세종의 자연을 품는 처마

한옥마을과 고운뜰을 향해 열려 주변경관을 차경으로 품는 진입마당은 한국전통 처마선의 친환경 으뜸광장으로 확장된다. 으뜸광장은 하부의 문화교실에 자연 채광과 환기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경사면을 활용하여 진입광장의 수공간과 함께 저영향개발기법으로 단지내 최적화된 물순환을 가능하게 한다. 각층에

계획된 처마와 루버는 조절된 풍부한 자연채광을 열람실에 제공하고 중정과 에코샤프트 계획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 Eaves that symbolizes Sejong City

Planned to work as a culture education and knowledge exchange hub, Sejong Public Library will support the balanced development of intellectual infrastructure in the local community, and it will become an iconic library that represents Sejong City and even Korea. The eaves of Jiphyeonjeon which is a place where Hangeul was created is reinterpreted in a contemporary style, and the spatial abundance and dynamism that can be felt in traditional libraries are taken to design a new type of eaves for the new library.

### Eaves that shows different gestures to locals

Rejecting the typical image of libraries, the proposed library's new eaves can actively accommodate rapidly changing social needs and envelop three-dimensional spaces. Three-dimensional sections define architectural spaces. Vertically divided reading and culture zones offer practical and efficient library services.

### Eaves that embraces the nature of Sejong

Being open toward Hanok Village and Goun Garden and borrowing the surrounding scenery, an entrance plaza expands into Eco Hill Square exhibiting the beautiful line of Korean traditional eaves. This Hill Square develops natural lighting and ventilation for Culture Workshop below, and, at the same time, it uses a slope surface and works with the pond of the entrance plaza to ensure optimized water circulation with a low impact development method. The eaves and louvers of each floor provide controlled yet rich natural lighting for the reading room and create a fresh interior environment through coordination with a courtyard and an Eco-Shaft system.

**2nd prize** Tomoon Architects & Engineers\_Choi Kicheol + A+CM Architecture\_Yi Taekchun + Park Yeol\_Kwangwoon University + Lim Hokyun\_Yonsei University **Location** Goun-dong, Sejong **Site area** 6,766.00m<sup>2</sup> **Building area** 2,686.90m<sup>2</sup> **Gross floor area** 10,098.67m<sup>2</sup> **Building coverage** 39.71% **Floor space index** 79.37% **Building scope** B1, 4F **Height** 22.5m **Structure** RC **Exterior finishing** Stone, Metal louver, Low-E triple glass **Parking** 62



# 세종문화관



**세종시를 상징하는 처마**  
 세종의 처마 선을 계해하여 세종시의 새로운 상징으로서 도시권의 처마를 단정하다.



**세종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처마**  
 처마 아래에서 세종시민은 세대간에 활발하게 교류하며 지식의 문화의 소풍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세종의 자연을 품는 처마**  
 세종이라는 자연을 끌어들이고 품으며 환경친화도시 세종의 "대표 도서관"이 된다.



STEP\_01 : 터 만들기(象形)



지형의 높낮이와 일선을 고려한 '터 만들기'

STEP\_02 : 공간 담기(加劃)



대지의 형태에 맞는 도서관/문화교육 '공간 담기'

STEP\_03 : 상징 담기(紐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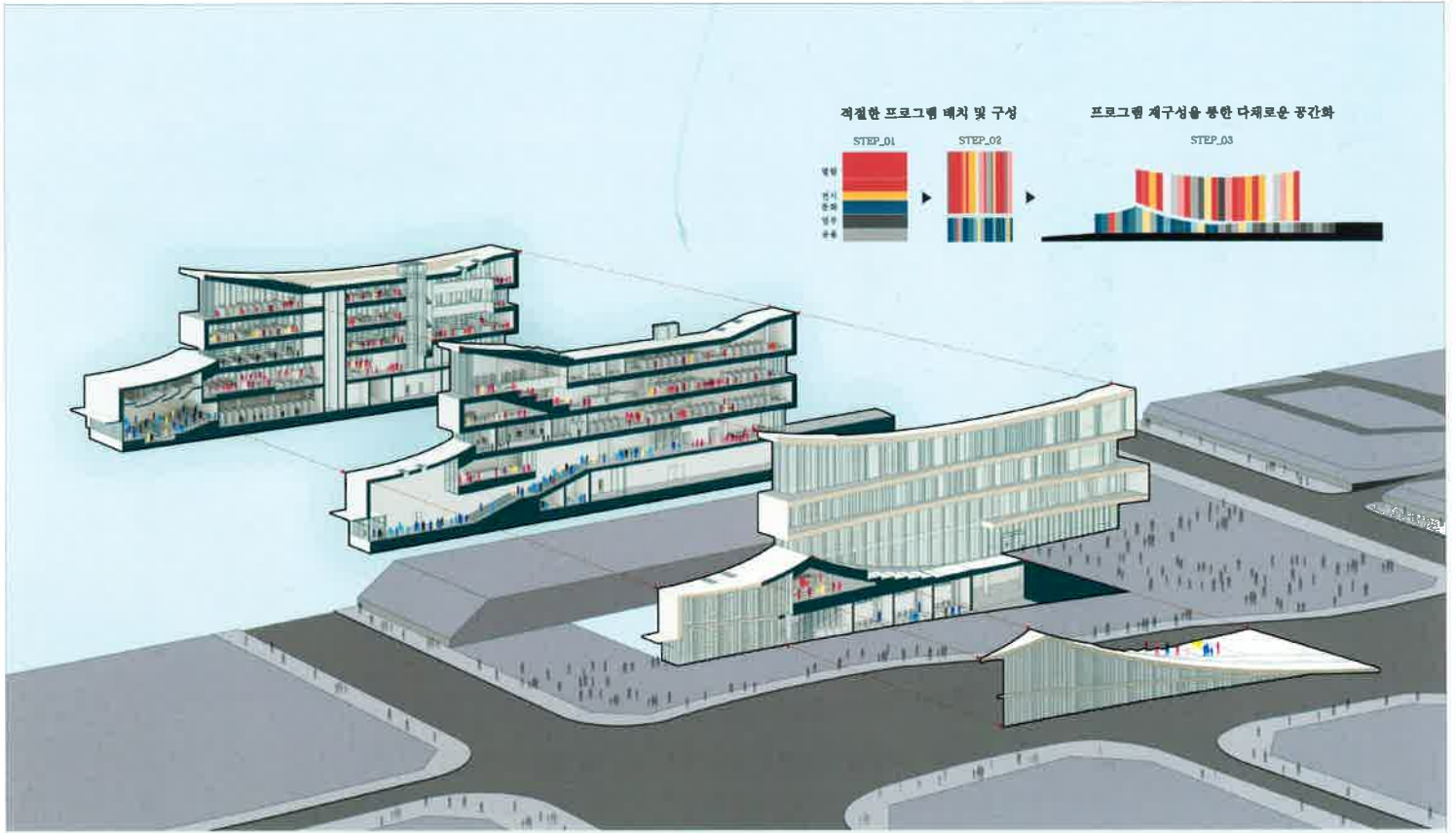
경통건축의 처마 선을 형상화한 '상징 담기'

STEP\_04 : 기능 담기(舍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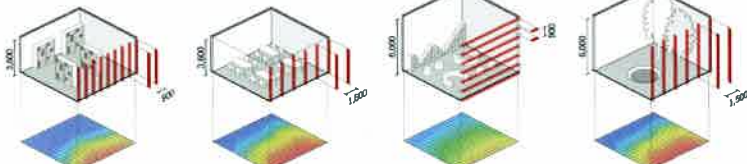
자연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처마의 '기능 담기'





기능별 부피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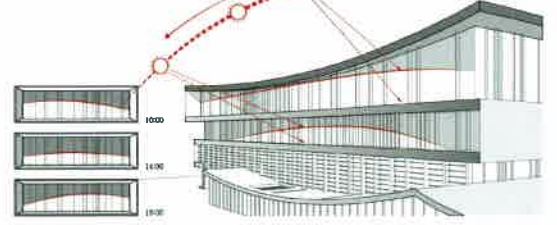
도서관은 각 실의 기능에 따라 적절한 실내 환경이 요구되므로 공간의 성격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부피계획을 하여 쾌적한 실내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에너지부하를 최소화 하는 부피계획



- 책 읽을 위한 부피**  
자연 채광의 입사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좁은 간격의 수직부피
- 열람을 위한 부피**  
적당량의 자연 채광을 확보하기 위한 넓은 간격의 수직부피
- 어린이를 위한 부피**  
강한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한 좁은 간격의 수평부피
- 놀이를 위한 부피**  
평지 높이에서 자연광을 유입하기 위한 넓은 간격의 수직부피

지마를 활용한 차양계획

충분 열광조건에 확보도 돌출된 지마는 시간과 계절에 관계없이 일련된 실내 조도 확보가 가능하고 시간대 따른 그림자의 변화도 다양할 인연



컨셉 스케치 \_ Concept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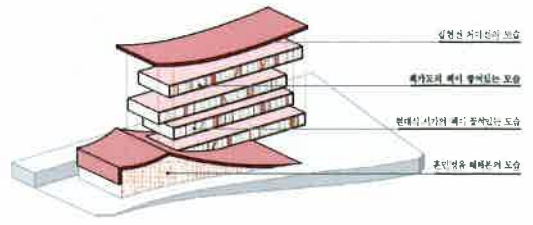
세종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을 만들기 위해 한글의 자음들 모티브로 일련성 구성

디자인 모티브 \_ Design Motif



디자인 구성 \_ Design Organization

관공적인 디자인 모티브를 현대적인 건축 언어로 재해석하여 세종시를 상징하는 새로운 도시상을 조성



09:00  
우리집의 아침. 아빠는 회사에, 누나는 학교에 가는 일과와 함께 **세종시립도서관**에 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10:30  
엄마는 내 친구 영희와 **공화국** 신서적 북방이를 사준다. 우리집이 더 따뜻해 질거라 기대한다.

11:00  
재미있는 것이 기다리던 나랑 친구들은 **생태놀이터**에서 공룡만화를 시작한다.

13:00  
오늘은 세종음악회가 열리는 날이다. 도시락을 갖고 **오솔밭**으로 갔다. 크롬폰을 바라보며 음악을 듣는 것은 나의 행복이다.



11:30  
이 코끼리를 보니 엄마가 **잠스파**에서 나를 데리고 계신다. 엄마한테 마시우유 사달라고 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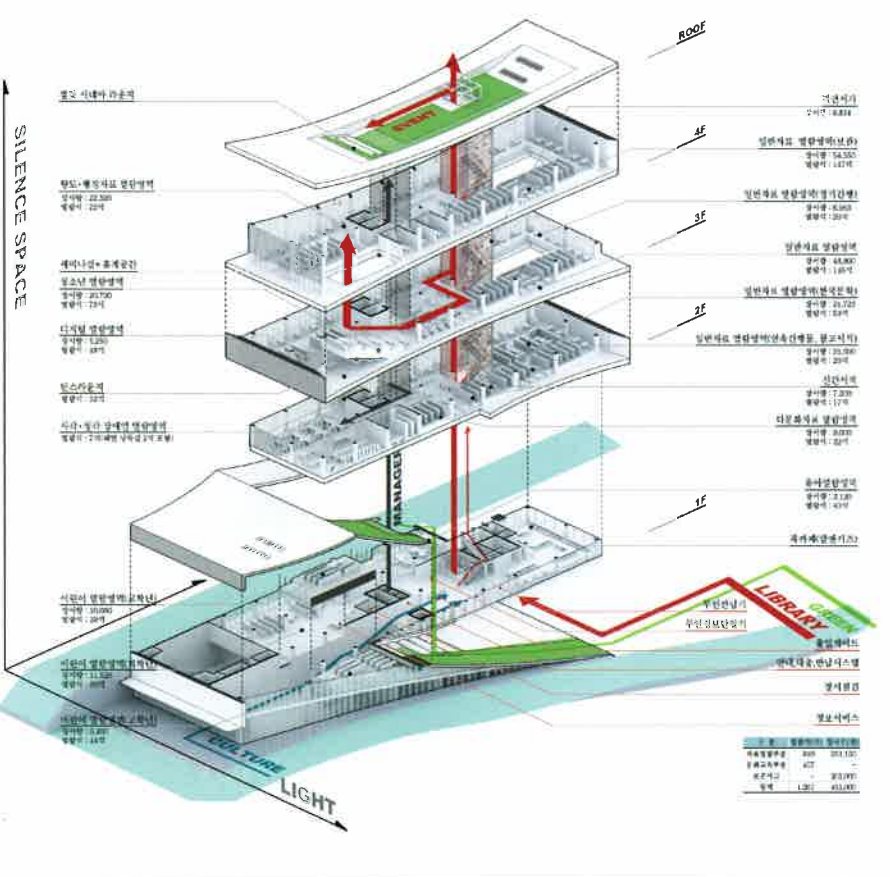
15:00 ABC  
우리집에 **ABC**가 들어왔다. 우리집이 더 밝아졌다.

16:00  
엄마는 새로 나온 초콜릿을 사 주려고 갔다. **7-Eleven**에서 사달라고 했다. 엄마가 마시우유 사달라고 해야지.

22:00  
오늘도 재미있어요. 안쓰는 독상정리대까지 **방탈** 신데리야! 글자도 모지러본것은 내일 밤 해까지.

20:00  
우리 가족은 과일이 있는 도시락 맛있게 먹었다. **공화국**에서 차를 보러간 누나는 내일도 놀이하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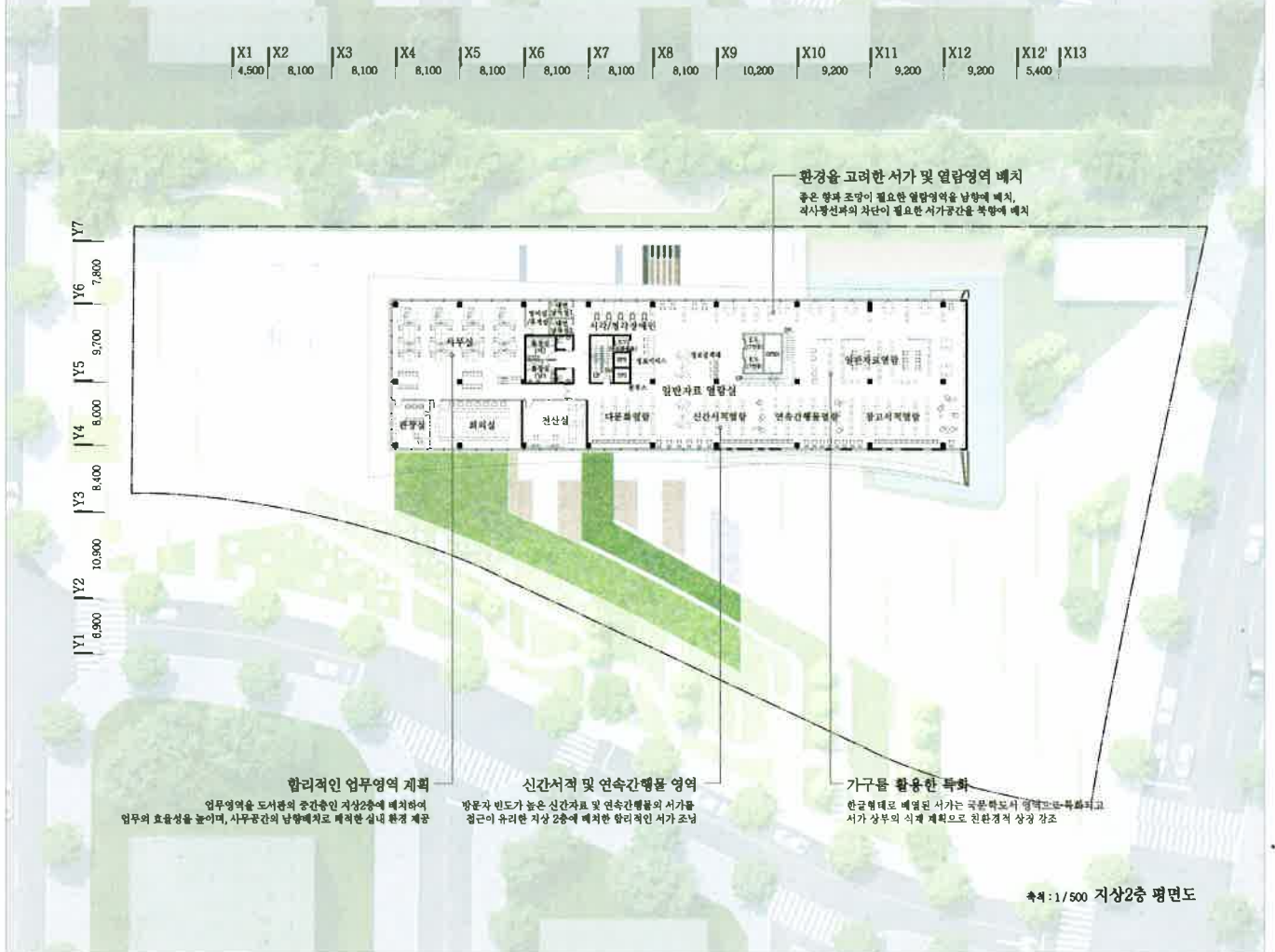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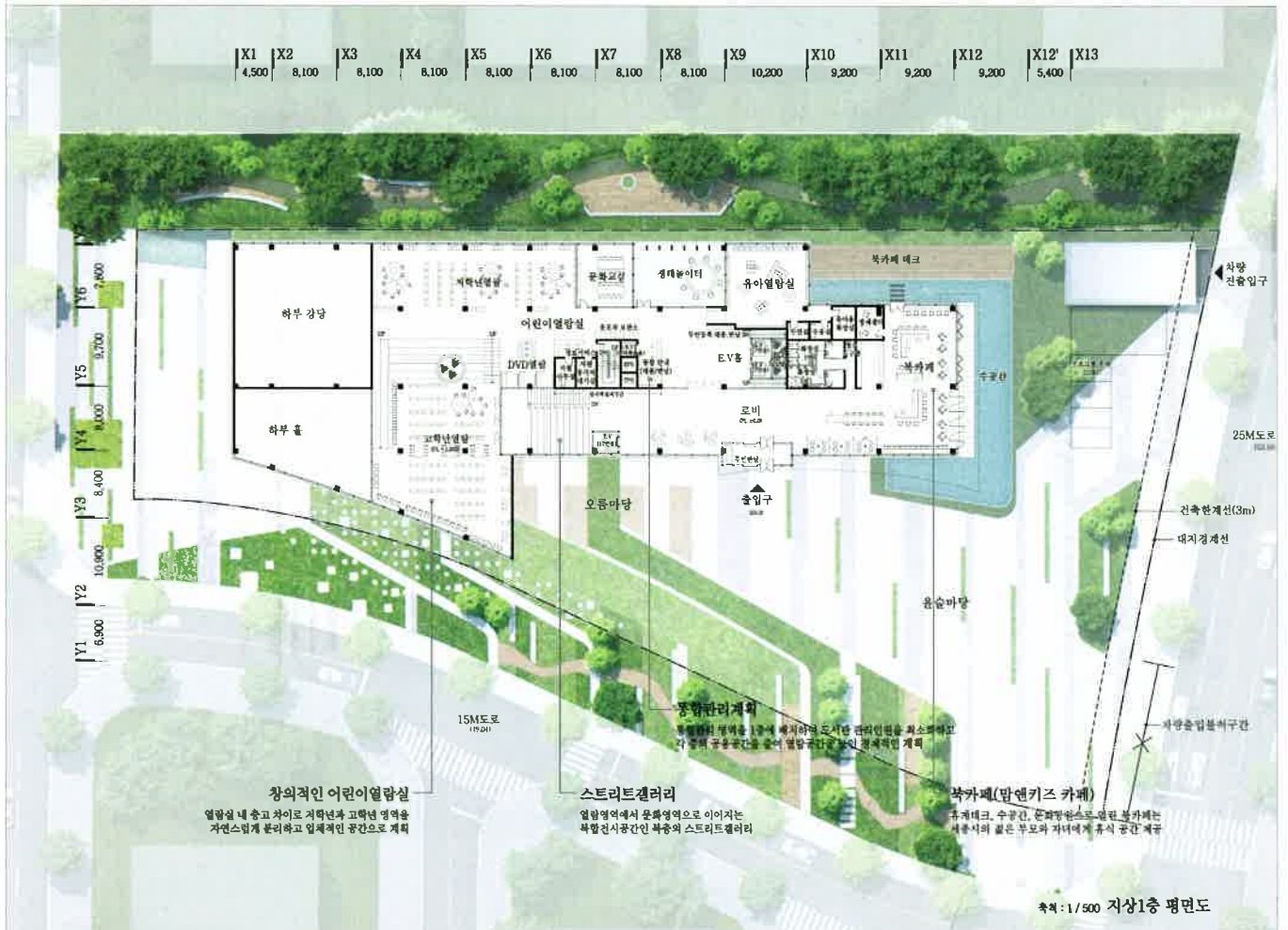
18:00  
거대한 **리더**도 느껴진다고요. 크롬폰 거대한 **공화국**도 느껴진다고요. **7-Eleven**에서 마시우유 사달라고 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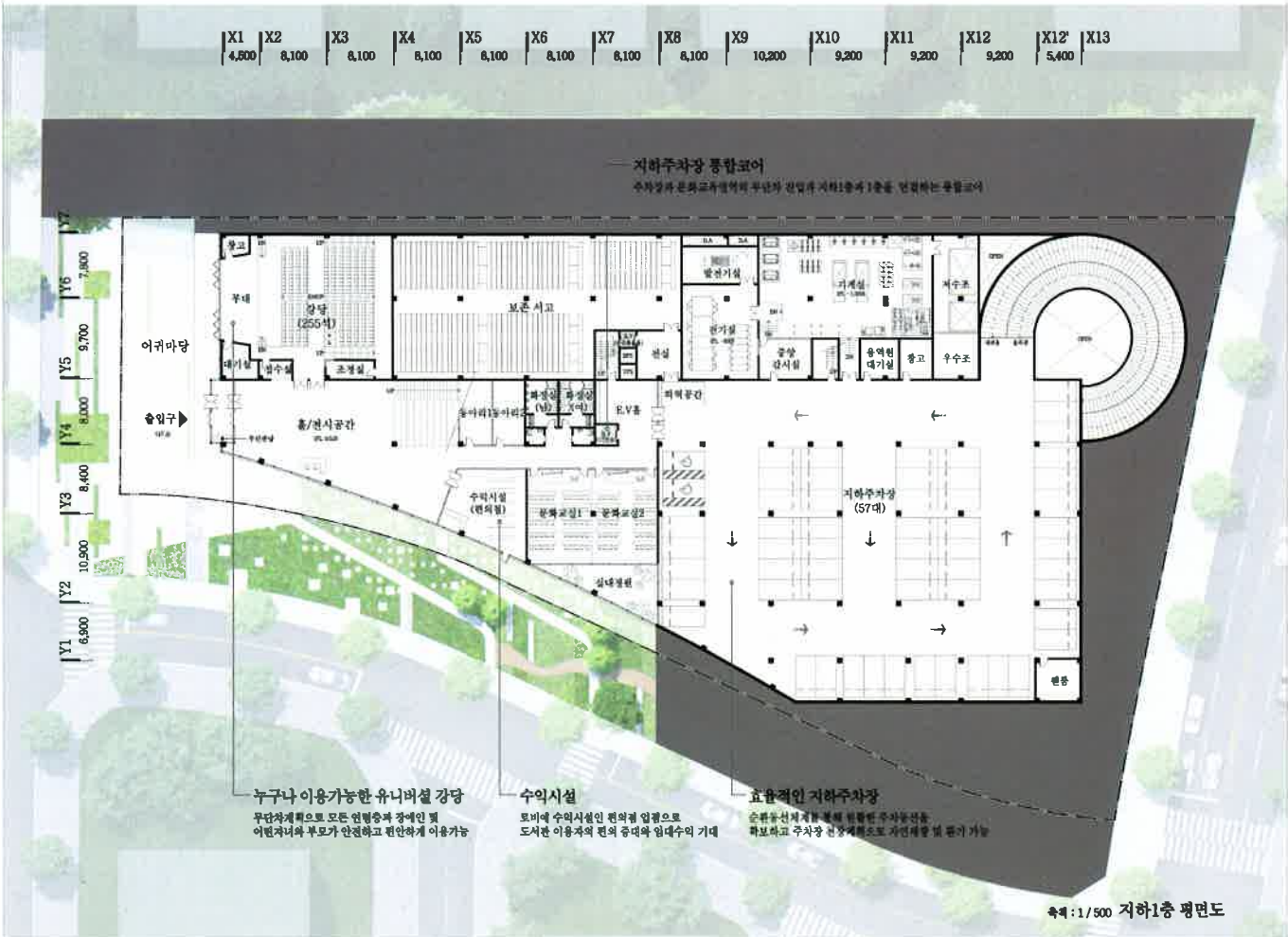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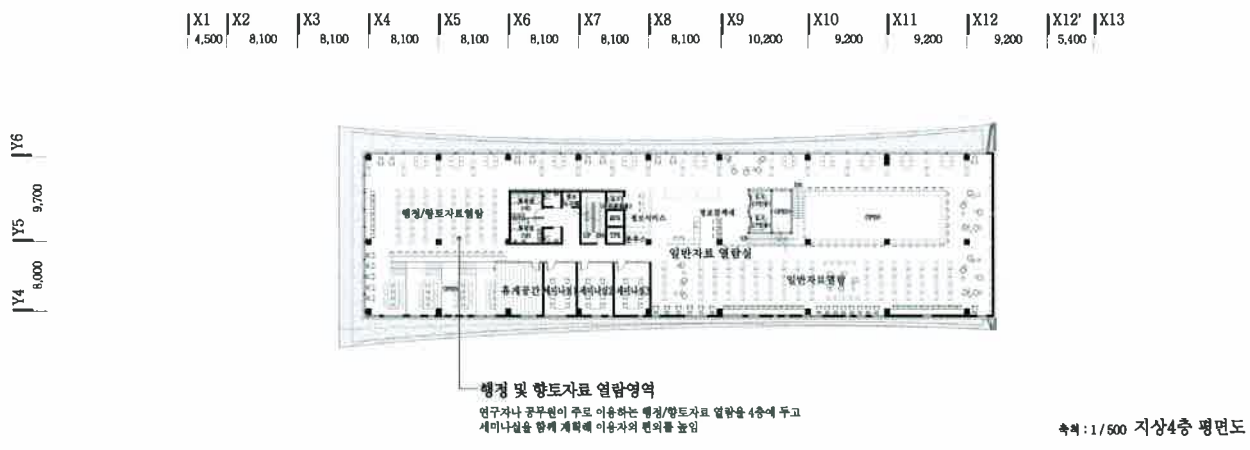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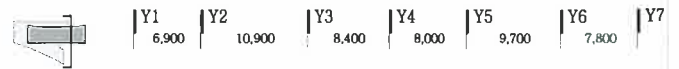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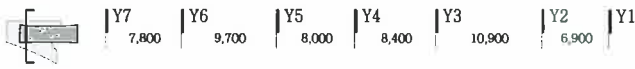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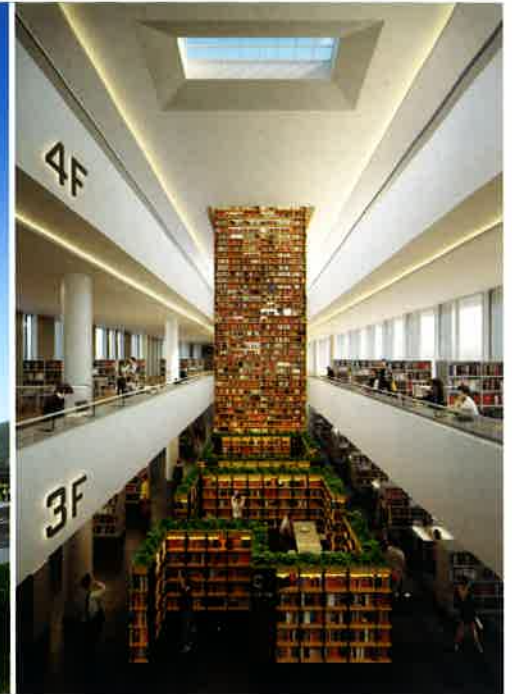
[ARCHITECTURE 건축예제]

도시와 자연을 연계하는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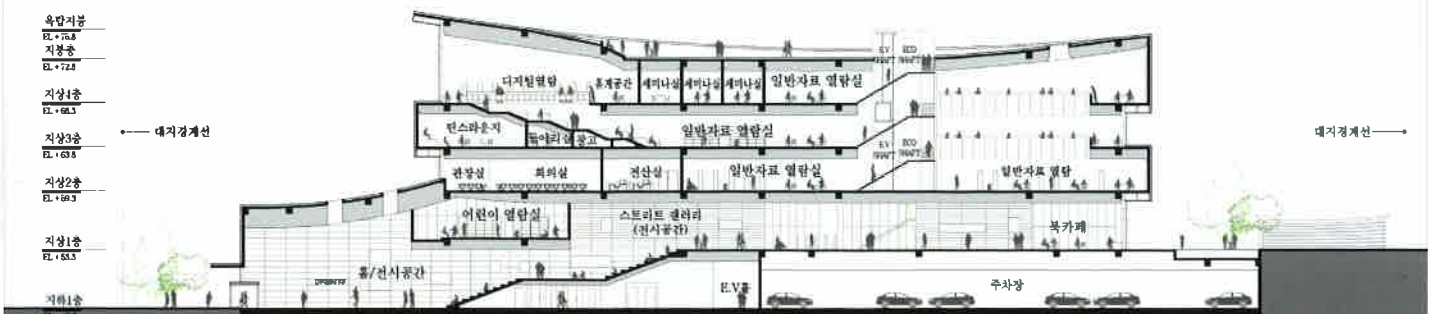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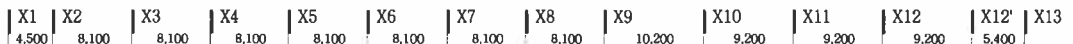






축척 1/500 종단면도

축척 1/500 종단면도



축척 1/1,000 종단면도

